

박물관의 순회형식과 관람동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itor's Circulation of Exhibition Space in Museum

신미경*/Shin Mee-Kyung
임채진**/Lim Che-jin

Abstract

Entering into the modern society, the discussion on the role played by and the social position held by museums are forced to take into account the visitors, that is, the general public being real consumers of 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 enlargement of the opportunity for leisure, and the change in the necessity of the study of the visitors.

The study of a museum has been developed with priority given to the architectural study and exhibition space, but the study of the form of circulation of visitors using the museum is believed to have put an emphasis on the

rough form of circulation on the basis of the general and basic theory and the particulars while the discussions on the more concrete method of study and its application are excluded as a basis of approaching in details to exhibition plans or producing plans.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the form of circulation in the existing exhibition rooms, and to infer the planning principles of interior design with priority given to the problems in space composition, details of exhibitions, the points in method, recognitions by visitors and the relation of path line as a way of resolving the problem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의의

현대의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방향의 하나로 참가지향형, 전문형 박물관의 출현을 들수있다.

이러한 관(館) 유형의 발전내지 변화는 일견 향후 박물관 전체가 취해야할 운영형태의 일대 전환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실은 전체적 전통적, 과거지향형 박물관¹⁾에서부터 미래지향적 박물관²⁾에 이르는 다양한 관의 형태가 설치되어, 동시대에 이러한 관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박물관 건축에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건축학 분야에서 이들을 총론적으로 다룬 서상우 논문³⁾ 외에 몇권의 국내 주요 박물관 건립 보고서⁴⁾가 이들의 포괄적 실체를 다루고 있는데 불과하며, 따라서 향후 박물관 건축에 필요한 연구로는 박물관의 유형에 따른 각론적인 연구가 보다 심세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배경의 인식하에 역사계 박물관을 중심으로한 관람동선의 특성을 실제적인 공간상에서 파악하여 이를 전시공간계획에 시사할 수 있는 지표내지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례조사 연구이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관람동선론(순회형식)은 전시장르의 자료와 유물속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논의가 배제된채, 건축공간 전체 동선의 flow diagram 정도의 일반론적인 면만이 강조되어 실제의 전시내용⁵⁾과 상치되는 공간구조를 취하거나, 전시회의 성격⁶⁾에 따라 전시의 배치가 지극히 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수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국립 중앙 박물관 (구 중앙청)의 전시실

을 대상으로, 실제의 공간 상향속에서 발생하는 " 전시자료 "의 배치와 전시스토리의 전개가 소위 " 관객 " 동선과 어느정도 부합되는가에 대한 " 마이크로 동선 "의 적합성 여부를 관찰조사를 통해 검증한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 박물관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이며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접할 수 있는 인문계 박물관 중 역사 박물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조사 대상은 현재의 국립 중앙 박물관을 대상으로 관람객의 순회형식을 일정한 방법으로 분석,평가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연구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으로 선정된 국립 중앙 박물관의 관람자 순회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1994년 10월, 약1개월간의 관객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관람객이 채택한 순로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 2) 이 기간동안에 전시실의 관람 소요시간과 관람 속도를 동시에 분석

- 1) 기념관, 향토 자료관, 민속 자료관 등의 전통적 역사계 박물관을 지칭함
- 2) 이를테면 체험전시위주의 과학계 박물관, 주민참여에 의한 박물관 운영등의 뮤지엄 활동
- 3) 서상우, 현대적 박물관 건축에관한 계획학적 연구, 홍익대,박사논문, 1988
- 4) 소위 국립 과학관, 서울 시립 미술관, 독립 기념관, 국립 중앙 박물관 등의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건립 보고서
- 5) 전시내용상의 시대적 흐름, 테마상의 순서등, 소위 전시 시나리오 특성상의 스토리 라인
- 6) 기획전, 특별전 등 상설전이 아닌 가변적 전시회의 개최시

*정회원, (주)국영테크 전시기획실 연구원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 공학과 조교수

하여 공간의 규모와 시간축간의 함수 관계를 규명한다.

3) 전시실 전체 벽면장길이나 관람 동선길이를 비교, 분석하여 순회형 식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한다.

2. 전시내용구성과 순회형식 분석

2-1. 전체 공간의 분석

국립 중앙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크게 역사, 고고, 고미술의 3가지 장르로 zone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명품위주의 고미술관의 성격이 강한 역사계 박물관으로 분류 가능하다.

1) 박물관 연혁

- 1908. 9 창경궁에 이왕가 박물관 개관
- 1915.12 총독부 박물관으로 개관
- 1945. 9 국립 박물관 개관
- 1950.11 부산으로 이동
- 1953. 8 국립 박물관 서울로 복귀
- 1954.12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
- 1972. 8 국립 중앙 박물관 경복궁에 신축개관
- 1986. 8 구 중앙청 건물을 개축 이전 개관

2) 전시 면적

연면적; 56,202㎡
전시면적; 10,076㎡

3) 전시 성격

- ① 역사, 고고 박물관으로서의 성격
 -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민족문화의 유산을 시대순으로 분류, 전시하여 그 발전 및 변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민족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한 주변 국가와의 교류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중국, 중앙 아시아, 일본, 낙랑 등 주변국가의 문화재를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원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② 미술박물관으로서의 성격
 - 한민족이 이룩한 미술품의 정수를 전시함으로써 그 우수성 및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 민족의 예술적 자질이 응결된 민족문화의 전시를 통해 일반에게는 민족에대한 자부과 긍지를 지니게 하며, 앞으로의 미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4) 전시공간 구성과 순회체계

국립 중앙 박물관의 전시공간은 크게 나누어 주층인 2층과, 3층, 4층의 3개층으로 구성된다. 주층인 2층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공간의 핵심이 되는 선사실, 원삼국실, 고구려실, 백제실, 신라실, 통일신라실, 불교 조각실을 배치하고 또한 기획전시실을 배치하여 특별 기획 전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다. 3층에는 2층에서의 연속성을 띠는 금속 공예실, 조선 자기실과 기증품 전시실인 수정기념관이 배치 되어 있으며, 4층은 한국문화와 밀접한 문화교류를 형성했던 주변 문화에대한 전시실로서 중앙아시아실, 낙랑실, 신안실, 중국실, 일본실과 특수한 성격의 전시공간인 서화실, 불화실 및 우리민족의 문화 형성을 한눈에 알수있는 역사실이 있다.

순회체계는 크게 층별로 이동되는 수직순회 동선과 한층에서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수평순회 동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직 순회동선;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각 층이 연결되며 선택동선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있다.
- 수평 순회동선; 좌에서 우로 관람하는 방식을 채택

〈표 1〉 국립 중앙 박물관 수평 수직 순회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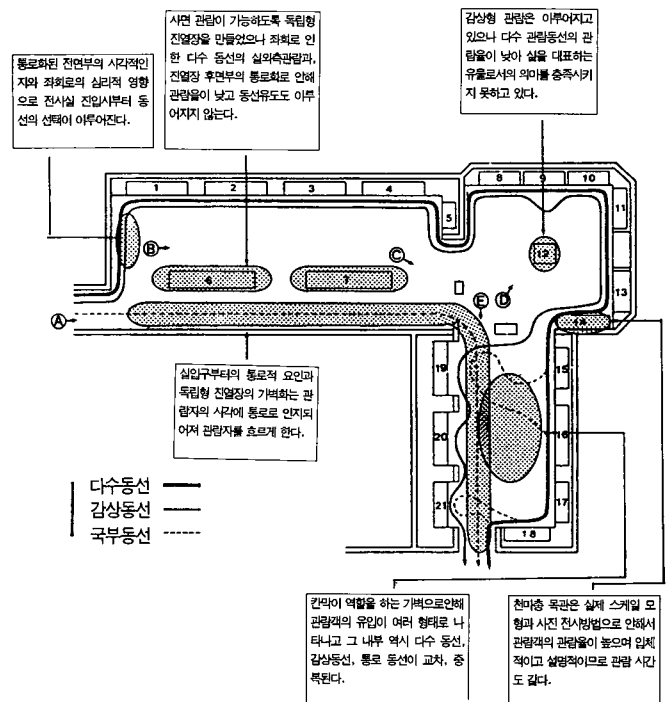
	수평 순회 동선	수직 순회 동선	전시실 순회형식
2층	선사실 - 기획전시실 - 원삼국, 고구려, 백제실 - 기획전시실 - 가야, 신라실 - 통일 신라실 - 불교 조각실 - 신라, 통일 신라실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 전시실	
3층	동원 기념실 - 금속 공예실 - 고려 자기실 - 이우씨 기증 외전실 - 분청사기실 - 조선 백자실 - 수정 기념실 - 사람방	문화와 관련된 고고학, 미술 전시실	
4층	서화실 - 불교회화실 - 중앙아시아실 - 낙랑실 - 신안 해저 유물실 - 중국실 - 일본실 - 역사자료실	한국주변 문화와의 비교 전시실 역사, 고고학, 고미술 전시실	

3. 전시실의 순회형식과 동선특성 분석

3-1. 전시내용과 관람동선의 상관관계

박물관내 16개 주요 전시실을 중심으로 관람객의 관람동선을 추적해 본 결과, 크게 다수동선과 선택 동선(감상 동선)에 따른 2가지의 특징이 관찰 되었다. 다수동선은 주로 단체 관람객이나 2-3명 이상의 그룹에 의한 일반 관객들이며 선택 동선(감상 동선)은 소수의 학생그룹이나 전문가, 기타 분야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다른 애호가 그룹들로 구성된다. 이 두그룹을 중심으로 관찰된 관객의 순회코스는 특히 감상거리, 감상시간, 감상의 순서등이 동선의 형태에 반영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16개 전시실중 2층 가야, 신라실로서 이 전시실 내에서도 여러가지 관람 동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가야, 신라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공간 계획상 시사되어야 할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다수동선은 직선 내지는 완곡형의 동선 형태를 취하나 선택 동선은 자유 곡선형에 상대적으로 굴곡이 심한 형태를 취한다.
- 2) 이 두가지 동선 자체는 진입후 아일랜드 전시를 전환점으로 거의 상

호 교차되지 않은채 진행된다.

- 3) 다수동선은 일정속도에 의한 방향성을 가지나 선택 동선은 정체시간이 불규칙하며 다양하게 변화된 미세동선이 감지된다.
- 4) 다수동선은 전시실의 4개 벽면중 2개 벽면만을 위주로 진행되나 선택동선은 2-3개 벽면을 위주로 관람이 진행된다. 또, 이과정에서 관람동선들이 교차하는 혼선지점이 확인된다.
- 5) 전시벽면은 진입후 좌측면을 중심으로하여 시계방향의 진행이 대다수를 이룬다.
- 6) 전시실 진입시 다음 전시실로의 출구가 인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

람시간이 다소 지연되며 동선의 혼란지점이 많아진다.

- 7) 전시내용상의 스토리 라인과 전시순서는 동선의 미세한 흐름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시의 순서가 전시실 4개벽면 전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8) 서화실을 비롯한 동양화, 병풍류등의 전시는 유물의 속성상 반시계방향의 동선이 바람직하나 전시실의 구성이 이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역순서에 의한 동선 유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 9) 아일랜드 전시가 전시실 폭의 중심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특히 동선의 교차 횟수가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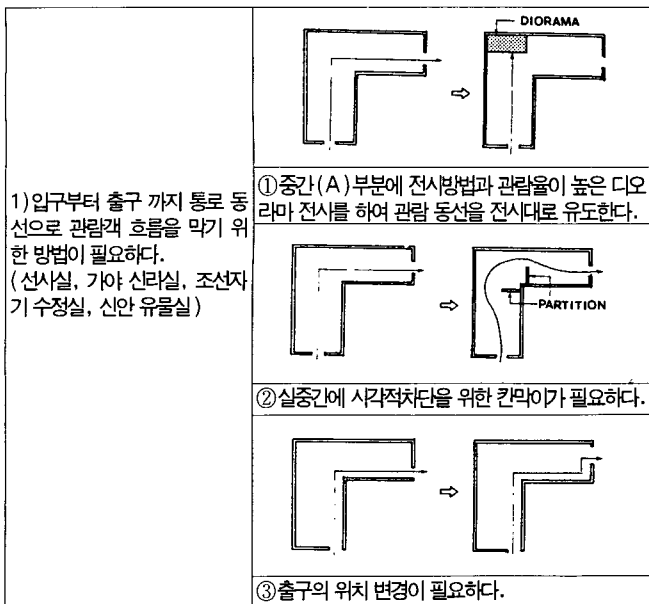
2층						다수동선 — 선택동선 — 국부동선 ····· 동선문제 유발지점 ●
	전시실	완삼국, 고구려, 백제실	가야, 신라실	신라, 통일신라실	불교 조각실	
3층						
	동원기념실	금속공예실	고려자기실	분청사기, 조선자기실	조선백자 수정실	
4층						
	서화실	중앙아시아실	낙랑실	신안해저 유물실	중국, 일본실	역사 자료실

〈그림2〉 전체 전시실 관람객 순회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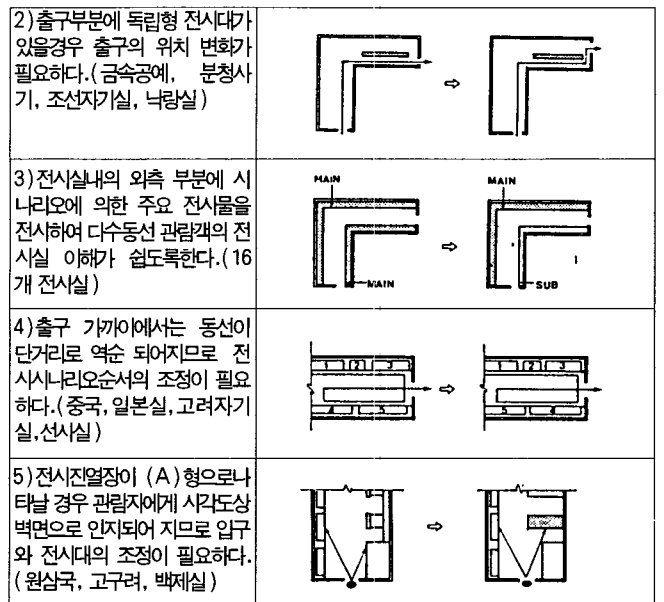
3-2. 순회형식 변화의 공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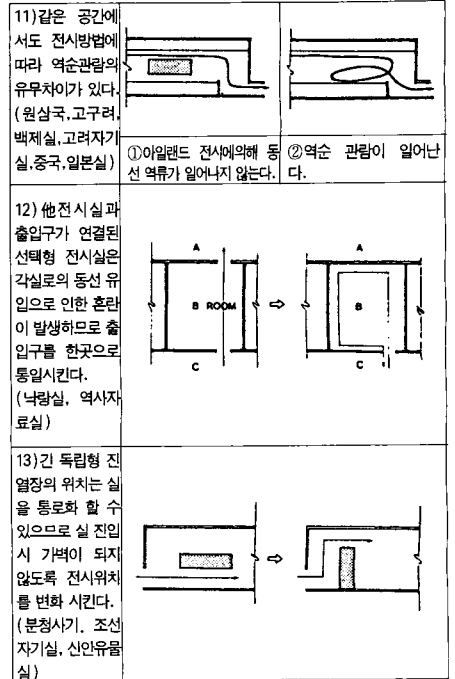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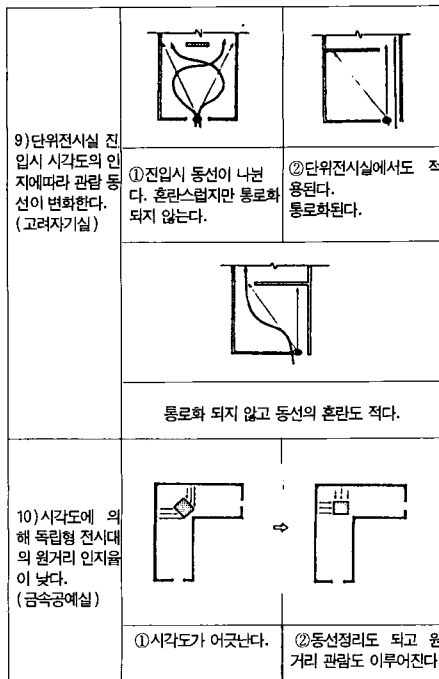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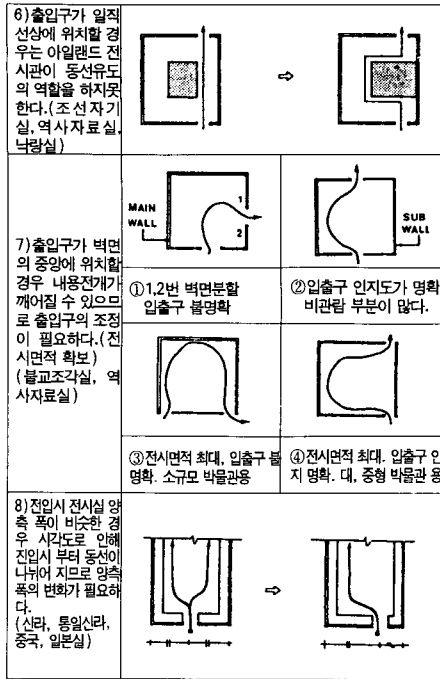
위와같이 전시실별로 순회형식과 동선상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을 유발시키는 공간적 요인과 이를 토대로 시사되는 공간 기법상의 대안을 제시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전시실 순회형식 변화의 공간적 요인과 대안





4. 실별 벽면장 길이와 관람객 동선 길이 분석

4-1. 벽면장 길이와 관람객 동선 길이

각 실별 벽면장 길이와 관람객 동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표2> 조

사되었다. <그림 1 참조>

관람객 다수동선의 길이는 시거리가 진열장에서 50cm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였고, 벽면장 길이에는 독립형 진열장의 면적을 제외하였으며 다수동선은 단체관람을 포함한다.

<표2> 벽면장 길이와 관람객 동선 길이

층	전 시 실		벽 면 장 길 이		독립형진열장 면적	다수동선길이		선택동선 길이	
	전시실명	면적		m		%	m		%
m ²		%	m		%				
2층	1. 선사실	568.14	6.42	90.10	5.46	디오라마:35.95	56.00	6.21	34.10
	2. 원삼국 고구려, 백제	559.48	6.33	106.90	6.47	아일랜드:10.00	67.50	6.31	39.40
	3. 가야, 신라	559.48	6.33	94.50	5.72	아일랜드:14.62	69.00	7.30	25.50
	4. 신라 통일신라실	614.14	6.95	126.90	7.69	실물재현: 8.37 아일랜드: 2.43	70.00	5.51	56.90
	불교 조각실	493	5.57	28.40	1.72	아일랜드:250.35	A. 29.6 B. 44.1		
3층	5. 동원 기념실	429.4	4.85	124.47	7.54		78.50	6.30	45.97
	6. 금속 공예실	598.73	6.78	108.10	6.55	아일랜드: 7.42	73.30	6.78	34.80
	7. 고려 자기실	538.34	6.09	114.30	6.95		72.00	6.29	42.30
	8. 분청사기 조선자기실	538.34	6.09	102.60	6.21	아일랜드:13.07	71.50	6.96	31.10
4층	9. 조선백자 수정실	598.73	6.78	106.70	6.47	실물재현:14.00	82.00	7.68	31.10
	10. 서화실	481.25	5.44	148.60	9.00		90.05	6.05	58.55
	11. 중앙아시아실	598.73	6.78	132.00	8.00		86.10	6.52	45.90
	12. 낙랑실	583.34	6.60	77.40	4.69	아일랜드:11.98 디오라마:16.83	72.50	93.36	4.90
	13. 신안 해저 유물실	583.34	6.60	87.10	5.27	아일랜드:11.98	70.50	8.09	16.60
	14. 중국 일본실	598.72	6.78	128.65	7.80	아일랜드: 2.62	85.03	6.60	43.15
	15. 역사 자료실	493	5.58	73.20	4.44	아일랜드:70.00	A.55.00 B.60.50	7.51 8.26	18.20 12.70
16개 전사실	8836.12	100	1649.92	100					

(단, 불교 조각실은 총 벽면장 길이에 대한 선택 동선 길이는 산출하지 않았음)

또한 박물관 전체 전시실의 층별동선의 길이를 합하면 <표3>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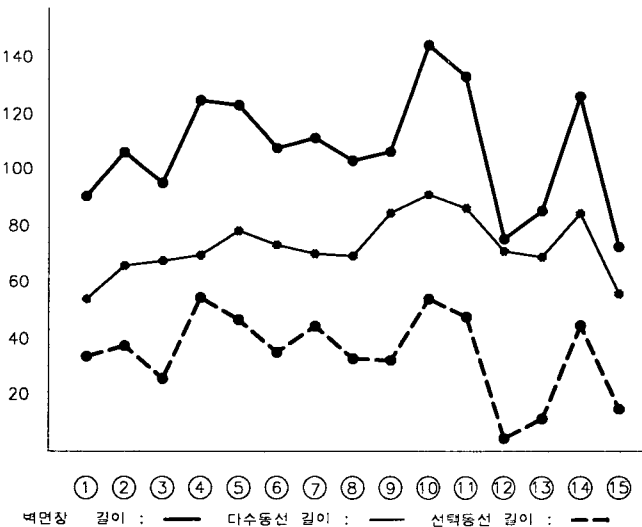
<표 3> 층별 전시실의 층 관람동선 비교

	총 벽면장 길이	다수 동선 총 길이	선택 동선 총 길이
	M	M	M
2층	418.40	262.50	155.90
3층	556.17	389.80	166.37
4층	646.95	459.18\464.18	182.77\187.77
총	1649.92	1111.48\1116.48	505.04\510.14

(단, 불교 조각실 제외)

이들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박물관 전시실별 벽면장 길이에 대한 관람동선과 선택동선의 길이는 실의 전시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실별 전시실 벽면장 길이와 관람객 다수동선, 선택동선의 길이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4>와 같다.

<표 4> 실별 전시실 관람동선 길이비교



(단, 불교 조각실 제외 번호는 표 2의 실번호와 동일)

<표 4>에서처럼 벽면장 길이에 대한 다수 동선의 길이는 12번, 13번, 15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택동선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별 공간 특성에 따른 동선 길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⑫ ⑬ ⑮ 전시실은 전시실의 길이에 대한 다수 동선의 길이가 길게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한 공통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3개의 전시실이 모두 동일한 전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시 시나리오에 따른 진열이 실의 외측을 따라 전개되어진다. 셋째, 전시실 내측은 진열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넷째, 통로형 관람객이 타 전시실에 비해 많다. 위에서 조사 되어진것 처럼 벽면장 길이와 관람객 다수 동선의 길이는 전시실 구성에있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벽면장 길이가 길어져도 관람객 다수 동선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다. 즉, 관람객은 전시실의 모든 전시물을 관람하지는 않는다. 둘째, 전시실의 구성이 단순한 전시실이 벽면장 길이에 대한 다수 동선의 길이도 길다. 셋째, 전시 시나리오 구성이 실의 외측으로 집중된 전시실이 벽면장 길이에 대한 다수동선의 길이도 길다.

5. 종합고찰

박물관의 전시실 구성과 전시방법은 관람객 순회 형식에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졌으나, 중앙 박물관의 경우에는 이 요소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람자의 민감한 시각적인 인지, 행태학적 요구등이 무시되어진채 계획되어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3개층 16개의 상설 전시실을 관람하는데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대부분의 관람객이 전시실을 지나치며 관람하는 단순 관람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전시실 구성은 관람객과 전시실 구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전시실 동선의 지속적인 교차, 혼란, 관객의 인지도 저하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박물관의 일회성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람을 이룰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박물관의 전시내용 구성과 순회체계에 필요한 계획의 전체 사항으로 분석되어진 관람객 전시순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공간 구조를 들수있다.

박물관에 입관해 16개 상설 전시실을 관람하고 퇴실하기까지 관람객의 순로는 관람층 선택의 차이, 관람시간의 차이등으로인해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시순로에 관해 관람객은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시시각각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시실을 돌아 나오는 무의식적 관람의 반복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입관사부터의 동선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 공간 구조 중 관람자의 순회가 이루어지는 전시공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출구와 입구의 일직선화로 인해 관람객이 전시실을 통로로 이용한다
- ② 출입구의 명확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람동선이 교차된다.
- ③ 전시벽면 중앙에 출입구가 위치하여 벽면이 양분되고, 전시 시나리오의 연결이 저하된다.
- ④ 전시실의 길이가 길고 좁을경우 실내 관람객 동선이 지그재그 교차되어 혼란스럽다.
- ⑤ 입구의 위치에따라 전시 관람 동선의 양분현상이 일어난다.
- ⑥ 기본형 전시실의 다수 관람 동선은 좌회한다.

둘째, 전시내용과 전시방법을 들수있다.

박물관의 전시실 구성 전시방법은 주로 벽부형 진열장 형식이며, 그 외에 아일랜드 전시, 디오라마 전시등이 있다.

그러나, 전시의 주를 이루고있는 평면 전시 방법인 벽부형 진열장은 관람시간이 짧고, 관람 시간도 낮지만, 입체 전시 방법은 관람율이 높고 관람 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역사, 고고, 고미술등 명품을 위주로 전시를 하더라도, 명품의 끝없는 나열은 관람자를 지루하게하고 명품에대한 인지도를 낮게한다.

전시내용과 전시방법에 의한 관람자 순회형식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시 내용에 따른 관람자 순회형식의 차이점

<표 5> 전시 내용에 따른 관람자 순회형식의 차이점

역사, 고고계	고미술계
역사 시나리오의 다수관람 동선이 많다.	선택형의 동선을 취한다.
각 실별 역사 시나리오순의 전시 전개가 이루어진다.	데마에 따른 실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실의 통로로의 이용율이 적다	통로화 동선이 많다.
역순 관람의 경우 내용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순관람 동선이 이루어져도 내용 연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2) 전시 방법에 따른 관람자 순회형식의 문제점

박물관 전시실의 전시 방법에 따른 관람객 순회 형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① 역사, 고고실의 출구 부분에 역순 관람이 일어날 경우 내용의 연결성이 저하된다.
- ② 다수동선의 실외측 관람으로 인해 실내측에 전시된 역사 시나리오와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전시 시나리오와 전시 방법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아일랜드 전시에 의한 순회 형식은 진열대의 크기와 위치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④ 실별 전체 벽면장 길이에 대한 다수동선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다.
- ⑤ 서화실, 동원 기념실의 경우 시선에 따른 동선의 유도가 이루어진다.
- ⑥ 폭이 긴 독립형 진열장 후면은 통로화 되어지며 다수동선 관람 길이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

위에서와 같이 박물관의 전시 공간, 전시 내용의 전개, 전시 방법 등은 관람객 순회 형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람객은 아주 단순한 공간 형태에도 행태학적으로 여러가지 행태를, 복잡한 공간에서는 한가지의 집단적인 행태를 나타내는데 공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6. 결론

본 연구조사의 결과 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방법, 공간 구성은 순회 형식과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물관의 전시실 구성시에는 유물의 단순한 설명이 아닌 자료와 그 배경으로서의 문화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인간과의 상호 관계가 전시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들의 추가가 필요하다.

1) 전시 공간적 요건

- ① 유물 속성에 따른 단면의 변화
 - 소형 장신구류의 전시는 낮은 천정고속의 아늑한 분위기의 규모가 필요하다.
 - 서화, 족자류는 세로로 장방형의 펼쳐진 상태가 되므로 최대 천정고를 확보하고 감상 거리도 충분히 확보되어야하며 반시계 방향의 내용전개가 필수적이다.
- ② 각 전시실별로 전시 내용에 따른 공간 구성의 차별화를 준다. 관람객 코스를 상정하되 목적 전시실까지 신속히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퇴실하고 싶을때 출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SHORT-CUT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③ 벽면의 중앙에 출구가 생길 경우 그 벽면이 출입구에 의하여 양분되므로, 전시 순로 체계상 전시 시나리오 구성상 연결이 저하된다. 따라서, 출입구의 위치는 벽면의 중앙부가 아닌 좌 또는 우측으로 집중시킨다.
- ④ 전시 유효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순 명쾌한 주요동선을 설정하기 위해 전시실의 4면 중 3면 이하를 전시함을 원칙으로한다.
- ⑤ 단기간 관람형의 관객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입관하는 관객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적 동선체계 공간이 필요하다.

2) 전시 방법적 요건

- ① 박물관 구조 안내 기능을 강화 하여 관람객이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랜덤 액세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 ② 각 실별로 전시 방법을 다양화 하여 관람객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③ 사랑채나 서재 공간을 연상시키는 문헌 자료를 비치한 휴게실등 다양한 용도와 분위기를 구사하여 휴게 공간의 차별화를 꾀한다.
- ④ 고미술 분야는 명품 위주의 "개별 전시"를 고고, 역사 분야는 해설적 요소를 도입한 "설명 전시" 또는 "군집 전시"를 행한다.
- ⑤ 전시의 주된 시나리오 전개는 전시실내의 중심 벽면만으로 구성하

고, 그 벽면의 대 향측 벽면은 보조적인 자료의 전시로 활용한다.
3) 전시공간과 전시방법의 제안

(1) • 소형 장신구류의 전시 공간은 spot 조명이 명품위주의 저밀도 전시가 되어야하며 공간의 규모 자체가 인건적인 척도를 유지해야한다.
• 아일랜드 전시가 사용 가능하다
• 진입시 우측 벽면은 평면 자료나 설명 패널등의 2차 자료를 진열한다.

(2) 수장 접수가 많은 도, 토기류는 전시실의 규모를 크게 상정한다.
• 벽면측은 명품류의 저밀도 전시를 유지하며, 가운데 부분은 아일랜드의 전시 케이스 속에 갖가지 형태의 도토기가 군집 전시된다.
• 맞은편의 소규모 보조 전시실은 메인 동선상에 위치하되 선택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하고 주 전시실의 명품 전시와는 달리 도자기의 파편류나 유사 자료를 고밀도로 전시하여 관련 자료실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다.

(3) 인쇄, 장경실은 자료의 성격상 우측에서 좌방향으로 자료를 읽어가게 되므로 반시계 방향의 동선유도가 필요하다.(서화나 병풍류의 전시도 마찬가지이다.)
• 이경우 기존의 전시벽면을 사용할 경우 시계방향의 코스가 형성되므로 전시실 의중앙부에소케이스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반시계방향의 동선을 유도한다.

참고문헌

1.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 출판사, 1993.
2. 윤정섭, 건축 설계자료 집성, 건우사, 1990.
3. 국립 중앙 박물관 건립 위원회, 해외 미술관, 박물관 조사 보고서, 문화체육부, 1993
4. C.M.Deasy, 인간행태와 건축 디자인, 한필원 역, 1990
5. 국립중앙 박물관, 박물관 전시유물 이야기, 통천 문화사, 1994
6. 국영테크, 전시계획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미술 공론사, 1990
7. 이진호, 디자인 통론, 유림문화사, 1993
8. 이해성, 근대 건축의 흐름, 세진사, 1993
9. 新建築學大系, 박물관의 설계, 彰誠社
10. 新井中二, 박물관학 강좌, 雄山閣, 1978
11. R.S.MARIUS 편저, THE DESIGN OF EDUCATIONAL EXHIBIT, 丹青社, 1992
12. 高橋信裕, DISPLAY DESIGN OF JAPAN, 六光社, 1992
13. 서상우, 현대적 박물관 건축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88
14. 이양림, 박물관 전시계획의 PROCESS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7
15. 박찬일, 전시 구성요소의 체계화에 의한 미술관 재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3
16. 강봉원, 미술관의 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17. 김낙동, 현대적 박물관의 전시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5
18. 임재진, 미술관 전시부문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일본 국립 츠크바대, 박사논문, 1992

(접수 : 1995. 5. 24)